

<서평>

## 『그가 네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윤영탁 저

수원: 합신대학원출판부

김희석\*

이 책은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구약학 명예교수인 윤영탁 교수의 저서로, 창 3:15에 나타난 원복음(proto-evangelium)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서이다. 원래 “창세기 3:15에 나타난 원복음”이라는 소논문으로 발표되었던 것을 보완하고 칠십인역에 대한 고찰을 보강하여 출판하였다.<sup>1)</sup> 필자는 본 서평을 통해 이 책의 주요 내용을 장별로 간략하게 요약한 후, 전체적인 평가를 시도하려고 한다.

### 1. 책 소개

이 책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부분은 이 책의

---

\*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구약학

1) 윤영탁, “창세기 3:15에 나타난 원복음,” 『성경과 신학』 4 (1987), 50-80; 윤영탁, 『구약신학과 신앙』, 구약신학 논문선 1 (서울: 엠마오, 1991), 7-36에 재출간.

중심 연구주제인 원복음을 다루는 부분이며, 두 번째 부분은 부록으로, 구약에 나타난 언약과기 모티브를 다루고 있다. 본 서평은 원복음을 다루는 첫 번째 부분을 집중해서 살펴볼 것이다. 저자는 원복음을 다루기 위해서 서론, 다섯 장으로 구성된 본론의 순으로 논지를 펼쳐나간다. 우리도 이 순서대로 그 내용을 요약해보고자 한다. 그 후에 부록을 간단히 요약하고, 이 책 전체에 대해서 간략한 평가를 제시하고자 한다.

## 2. 책의 내용

### 2.1. 서론: 구원 교리에 관한 여러 견해 및 문헌의 희귀성

윤영탁(이후 ‘저자로 표기함)은 구원 교리에 있어서 원복음의 이해가 매우 중요함을 피력한다. “구원교리의 핵심이 창세기 3:15에 나타난 원복음이다”(12쪽). 저자는 이러한 원복음의 중요성이 비평학의 등장으로 인해 경시되어 온 점을 비판적 시각에서 지적하면서, 비평학계의 주요한 주장들을 언급한다. 예를 들어 미클, 베스터만, 폰 라드, 침멀리, 제임스 바, 그레쓰만 등은 창 3:15을 구약의 구속사를 시작하는 원복음으로 이해하지 않았다. 이러한 비평학계의 입장을 약술한 후 저자는 교회사에서 원복음을 어떻게 다루었는지를 살펴본다. 이레네우스, 루터, 칼빈, 헝스텐베르크, 델리취, 윌슨, 엥거, 카이저 등이 원복음의 중요성을 언급하였음을 차례로 설명한다. 이어서 저자는 현대 학계에서 원복음에 대한 연구가 얼마나 부족한가를 짚어나간다. 갈루스, 스키너, 사이몬, 스텝 등등의 연구들을 살펴보면서 구원 교리에 대한 구약학계의 연구가 매우 절실함을 피력한다. 특별히 창 3:15에 등장하는 문구인 ‘여자의 후손’에 대한 해석사를 깊이있게 연구한 루이스의 논문을 소개하면서, 그 논문을 통해 창 3:15에 대한 멜톤, 앤드류스, 론닝, 오제윌 등의 연구결과를 연속적으로 제시한다. 저자는 이러한 연구물들에 대한

요약과 비평을 통해 볼 때, 전체적으로 원복음에 대한 구약학계의 연구가 절실하다고 지적하면서, 창 3:15이 ‘원복음’이라고 불리는 것이 당연하며 이 구절이 “구원에 관한 성경 해석사에서...당연히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2.2. 1장: 창세기 3:15에 메시아가 예언되었는가?

저자는 이제 본격적으로 창 3:15에 과연 구속사의 시작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표현되어 있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기 시작한다. 이를 위해 저자는 그동안 창 3:15가 구약학계에서 어떻게 이해되어 왔는가를 추적한다. 이 1장의 내용은 사실상 창 3:15의 연구사 요약으로 이해될 수 있다. 맥콘빌, 영, 카이저 등이 창 3:15에서 메시아를 찾아낼 수 있다고 보았음을 말하면서, 저자는 창 3:15를 포함한 헵스텐베르트, 윌슨, 엉거, 카이저의 메시아 예언 목록들을 제시한다. 이어서 저자는 신약성경이 구약성경을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간략하게 설명하는데, 박윤선, 겔덴휘스, 롱제넥커 등의 연구에서 신약의 저자들과 초대교회가 메시아를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약술한다. 훔니쉬, 부루스, 롱제넥커 등이 바울서신 연구를 통해 바울의 증거가 구약성경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해했음을 밝혔음을 언급하기도 한다.

이후 저자는 기독교 학자의 범주를 넘어서서 유대교의 메시아 대망 사상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유대교의 구약성경 이해에 있어서는 인간의 타락 및 죄에서의 구원 문제가 핵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드러내고자 한다. 특별히 저자는 레비(Levey)의 연구를 통해 탈군에 나타난 메시아 대망 사상을 조명한다. 공인된 탈군들은 메시아 해석에 있어서 매우 신중하며, 메시아 사상이 일반적으로 많이 드러나지만 상세한 부분에 있어서는 해석이 탈군역의 종류에 따라 상이한 부분들이 있고, 탈군에 나타난 메시아 상에 있어서 메시아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상징

혹은 적극적 대행자가 될 것이라고 묘사했다는 것이다. 또한 클라우스 너는 유대교의 메시아가 구속적 역할을 담당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구속자가 되신다고 보았고, 엉거 역시 유대교의 메시아 이해가 구속의 요소들을 제외시켰다고 보았음을 지적한다. 리스트 역사 유대의 메시아 사상은 한 인물에 집중하지 않고, 예수의 오심을 메시아 대망의 성취로 이해하지 않기 때문에 기독교의 메시아 이해와 매우 다르다고 지적했음을 언급한다. 이러한 일련의 연구사를 정리한 후, 저자는 창 3:15를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연구하지 않은 많은 학자들이 있음을 지적하면서, 우리는 유대교적인 아닌 기독교적인 시각에서 원시복음을 구원사의 관점으로 읽어야 한다고 분명하게 주장하고 있다.

### 2.3. 2장: 아담과 하와의 행위언약 파기 (창 3:1-6)

이 부분부터 저자는 본격적으로 본문에 대해서 주해하기 시작한다. 먼저는 창 2:16-17를 원어 중심으로 해석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육신적 죽음 정도가 아니라 영적 죽음을 당하게 됨을 제시하고, 아담과 하와가 언약을 어긴 결과가 자신들 뿐 아니라 후대의 모든 인류에까지 미치게 됨을 설명한다. 이어서 창 3:1-6에서 하와가 뱀과의 대화 중에 한 말을 면밀히 살피는데,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여 자신의 의도에 맞게 변형시켰다고 자세히 논증을 통해 주장한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하셨는데 하와가 이 말을 왜곡하여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라고 변형시켰고, 아담 역시 선악과를 실제로 먹기 전에 하와와 의논하는 과정 속에서 이미 함께 의논하고 함께 타락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본문 읽기 과정 속에서 저자는 특별히 창 3:6에 집중하는데, ‘보다’라는 동사의 의미에 단순히 사물을 보는 시각적인 차원을 넘어서 “마음에 깊이 새기거나 담는”의미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

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겠다는 “사탄적 배역”을 통해 타락하고 말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 2.4. 3장: 창세기 3:15의 문맥

이어서 저자는 이 책의 주관심사인 창 3:15의 문맥을 살핀다. 이 구절은 창 2:16-17의 금령과 연결되어 있기에, 창 3:15의 문맥은 아담이 하나님과 체결한 행위언약을 파기했음을 전제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구원계획을 지체 없이 피력”하셨고, 이 사실이 문맥의 흐름에서 매우 중요하다. 영(E. J. Young)은 창 3:11-17의 본문이 교차대구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 핵심에 14-15절이 있다고 보았는데, 저자는 이러한 영의 견해를 받아들인다. 또한 뵐(Böhl)은 창 3:15에서 중요한 핵심이 하나님께서 “유혹한 자와 유혹받는 자 사이에 원수 관계를 설정”하셔서 인간을 “사탄으로부터 분리”하신 사건이라고 보았는데, 저자는 이러한 뵐의 견해 역시 받아들인다. 저자는 또한 박윤선이 말한 바 “사람과 뱀을 서로 원수가 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사람이 마귀와 원수 된 상태가 구원”이라는 점 역시 받아들인다. 요약하면, 저자는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토대로 하여, 창 3:15의 문맥은 아담과 하와가 언약을 파기함으로 심판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데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 2.5. 4장: 창 3:15의 이해

이제 우리는 이 책의 핵심 논증인 제 4장에 이르렀다. 저자는 이 부분을 통해 원복음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집중적으로 피력해 나간다.

저자는 창 3:15의 주요한 핵심에 대해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논증을 전개한다. 첫째는 ‘원수’라는 단어이다. 히브리어 ‘에바(אֵבָה)’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저자는 이 단어가 쓰인 구약성경의 다른 부분들을 살펴본다. 먼저 민 35:21-25에서는 원수 관계가 악의를 가지고 살인한 경우를 뜻하고 있음을 살폈고, 겔 25:15에서는 이스라엘의 적국이었던 블레셋에 대하여 ‘에바’라는 단어를 언급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또한 겔 35:3에서 에돔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에바로 정의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이러한 세 본문에 대한 연구를 통해 저자는 창 3:15에서 사용된 ‘에바’라는 단어가 “쌍방이 서로 공존할 수 없는 관계를 가리킨다”고 주장한다. 원수 관계란 쌍방의 한쪽이 전멸할 때까지 계속되는 관계라는 것이다. 저자는 이러한 원수 관계가 인간과 사탄의 관계가 되도록 하였고, 이것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은혜 언약을 허락하시는 일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15절 본문에 나오는 “씨”는 여자의 후손들을 일반적으로 뜻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음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둘째, 저자는 15절 하반절의 “그”가 누구를 가리키는지의 문제를 다룬다. 먼저 “그”에 대한 부정적인 해석들을 요약, 평가한다. 폰 라드 등의 집합적 견해, 양식비평적 해석, 그리고 윤리적 해석 등을 언급하면서, 이러한 해석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기보다는 인류를 전체적으로 가리키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원복음과 하등의 관련이 없다고 평가한다. 특별히 본문의 “그”를 마소라 텍스트의 남성대명사 ‘후’(הוּא)가 아닌 여성대명사 ‘히’(היא)로 읽음을 통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이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로 이해하려는 독법에 대해 강력한 반론을 제기한다. 저자는 창 3:15의 여자의 후손이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사실이 해석의 근간이 되어야 한다고 여기고 있음이 분명하다. 셋째, 저자는 이어서 칠십인역의 아우토스(αὐτός)에 대한 해석 문제를 다룬다. 칠십인역이 ‘후’를 중성인 ‘아우토(αὐτοῦ)’로 번역하기보다 남성인 ‘아우토스(αὐτός)’로 번역한 이유에 관한 논증을 다루는 것이다. 저자는 이 부분에서 마틴(R. A. Martin)의 논문을

소개하면서 칠십인역이 ‘후’를 남성인 ‘아우토스’로 번역한 것이 창 3:15에 대한 최초의 메시아적 해석이라고 주장한다. 물론 이러한 마틴의 해석에 반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 아닌 그냥 일반적인 번역에 불과하다는 러스트(J. Lust)의 해석 역시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 신약성경 저자들과 예수께서 칠십인역의 ‘아우토스’라는 문구에 집중하지 않은 이유는 히브리어 성경에 메시아 사상을 보다 더 적절하게 뒷받침할 다른 성구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기도 한다. 넷째, 저자는 창 3:15에서 두 번 반복되어 사용되는 ‘슈프’(שׁוּפֹ) 동사의 의미에 대해서 논한다. 어떤 학자들은 첫 번째 용례는 ‘상하게 하다’로 보지만 두 번째 용례는 그보다 약한 의미의 ‘덤석 물다’ 혹은 ‘노리다’ 정도로 해석하고 있는데, 저자는 욥 9:17 및 시 139:11 등의 경우에 근거하여 창 3:15의 두 경우 모두 ‘상하게 하다’라고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자의 후손인 예수께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과 사탄 역시 예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 2.6. 5장: 창세기 3:15b에 나타난 화목의 교리

창 3:15에 대한 마지막 논의로서 저자는 원복음에 나타난 화목의 교리를 설명한다. 특별히 신약성경에서 제시하는 화목의 교리에 대하여 자세하게 논증한다. 롬 5:10-11에서 “원수”라는 표현을 위해 사용된 헬리어 ‘엑스드로스’(ἐχθρός)가 바로 창 3:15의 ‘원수’에 대한 칠십인역의 번역과 같은 단어라는 점을 말하면서, 창 3:15이 화목의 교리를 내다 보고 있다고 말한다. 여자의 후손인 예수께서 상함을 받으므로써 아담, 하와 및 그 후손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것이다. 유대교에서는 ‘발꿈차’라는 말을 시간적으로 해석하여 종말론적 메시아 시대와 연관시키지만, 그러한 해석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는 연관시키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저자는 창 3:15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성취되었음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 2.7. 부록: 구약에 나타난 언약파기 모티프

저자는 이 책의 부록 부분에서 구약에 나타난 언약파기 모티프를 설명하고자 시도하는데 특별히 호세아 6:7의 ‘아담처럼’이라는 문구를 살펴본다. 저자의 핵심주장은 호 6:7의 ‘케아담(כֵּאָדָם)’이라는 문구에서 ‘아담’을 일반명사인 ‘사람’이 아닌 ‘아담’이라는 고유명사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많은 학자들의 ‘아담’에 정관사가 없음을 근거로 고유명사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본문은 시(詩)이며 또한 창 2:20b 및 창 3:17, 21에 정관사 없는 용례가 있으므로, 호 6:7의 ‘아담은 고유명사인 아담을 말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욥 31:33 및 시 82:7도 추가적인 용례적 근거로 제시한다. 저자는 이어서 호 6:7의 ‘삼(שָׁם)’도 장소적인 의미로 이해하기보다는 강조적인 용법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내용들을 근거로 저자는 호 6:7의 본문을 다음과 같이 번역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그들은 자진하여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당돌히 나를 배신하였느니라. 결론적으로, 저자는 호 6:7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을 묘사하기 위해 창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창조의 언약을 깨뜨린 사건을 모티프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 3. 평가

이제 이 책의 내용을 간략하게 평가해보기로 하자. 무엇보다도 이 책의 가장 큰 강점은 창 3:15의 해석에 있어서 구속사적 관점의 중요성을 철저하게 부각시켰다는 데 있다. 저자는 창 3:15이 구약성경 및 신약성경을 포괄하는 정경적 흐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속역사

의 시작점이며, 따라서 이 구절에서 언급된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서 창 3:15에 관련된 매우 다양한 학자들의 견해를 요약, 정리, 혹은 비판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매우 논리적이고도 일관성 있게 펼쳐나가고 있다. 저자와 동일한 입장에서 구속사적 읽기로 구약성경을 읽고자 하는 이들에게 저자는 매우 중요한 학문적 자료 및 논증점들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저자는 원문에 충실한 주석적 고찰을 하려고 노력하였다. 창 3:15의 히브리어 본문에 대해 매우 세밀한 부분까지도 고찰하였고, 여러 해석의 가능성들을 제시하면서도 자신의 견해를 설득력있게 피력하였다. 또한 히브리어 원문 뿐 아니라 창 3:15의 칠십인역에 대한 연구까지 포괄하여 폭넓은 원어적 접근을 시도하였는데, 이는 이 책의 중요한 강점이라고 말할 수 있다. 셋째, 앞서 잠시 언급한 것처럼, 이 책에서 저자는 수많은 학자들의 견해를 수집하여 평가하면서 그러한 논쟁 가운데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비단 창 3:15에 대한 연구 뿐 아니라 부록에 나타난 호 6:7의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드러나고 있다. 저자가 오랜 기간동안 이 문제들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학계의 의견들을 고찰하고 비판하며 자신의 견해를 정리해 왔음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하겠다.

이렇듯 많은 장점을 지니고 있기는 하지만 이 책에는 좀 더 개선되면 좋을 부분들도 없지는 않다. 첫째, 저자는 본문 해석에 있어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단어연구에 몰두하여 성과를 내고 있는 반면, 그 단어가 해당 본문의 문맥에 있어서 어떤 해석의 가능성 범주를 가지고 있는지에 관심을 덜 기울이고 있다. 예를 들면 창 3:15의 ‘에바’에 대해서 논할 때, 이 단어가 구약성경 다른 곳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가를 집중적으로 조명하기는 했으나, 이러한 ‘원수됨’이 창 3:15의 원문맥, 근접문맥, 본문 자체의 구조 등에서 어떤 의미를 부여받을 수 있는지를 논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보다 더 깊이 있고 유기적인 주석적 노력이 더해졌더라면 저자의 논지를 더욱 강화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된다.

둘째, 저자는 창 3:15를 신학적으로 읽으면서 정경적 맥락에서의 의미를 깊이 강조하고자 했는데, 이러한 노력은 이 책의 가장 큰 강점인 동시에 약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 예수 그리스도 사건의 빛 아래서 창 3:15를 읽는 것은 물론 중요하며 본문의 종말론적 성취의 이해라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이러한 논증 과정 속에서 구약적 의미가 좀 더 먼저 깊이 드러난다면, 그 구약적 의미를 신약으로 연결하는 과정 속에서 오히려 더 탄력적이고 풍성한 성취의 면모가 드러날 수 있었으리라 여겨진다.

이러한 단점들을 지적할 수는 있겠으나,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저자 운영탁 교수는 창 3:15의 해석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들 및 해석의 관점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음을 분명하며, 이러한 의미를 생각할 때 저자는 이 책의 저술을 통해서 한국 신학계 및 교회에 큰 공헌을 했다고 평가되어야 한다.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을 예표한다’는 정도로 간략하게 넘어가기 쉬운 창 3:15의 해석사를 면밀히 고찰, 정리하고, 이슈가 되는 부분들을 요약, 비판하면서, 원어에 근거한 구속사적 읽기를 시도한 저자의 노력은 우리가 ‘원복음’이라고 부르는 본문에 대한 너무나 당연한 연구자의 모습이라고 생각되며, 그동안 우리 학계가 미처 다루지 못하고 소홀히 여겼던 부분을 채워준 소중한 학문적 성과라고 생각된다. 구약학계의 원로이신 저자 운영탁 교수님께 감사의 뜻을 전하며, 후학들이 이러한 연구의 뒤를 이어 창 3:15에 대한 더 깊은 연구를 진행해 나가야 하리라고 생각한다. 필자가 이 책의 약점으로 위에서 지적한 부분은 사실상 후학들이 앞으로 더 보완하여 연구해야 할 남은 부분일 것이며, 이 책은 그러한 연구의 출발선에서 후배 학자들과 목회자들을 향한 값진 격려의 유산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마음으로 저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서평을 맺는다.